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의 옛책

「日本訪書志」 펴낸 沈暎俊 교수

「日本訪書志」라는 색다른 이름의 저술이 최근 마스크의 각광을 받고 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의 책을 두루 찾아 기록했다’는 뜻. 그러나 “임진왜란 때 倭가 약탈해간 국보·보물급 典籍 464종이 아직도 일본에 있음이 처음으로 확인됐다”는 투의 다소 호들갑스러운 마스크의 반응에 대해, 정작 이 책을 펴낸 당사자인 沈暎俊 교수(63·중앙대 도서관학과)는 웬지 떨떠름하고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글쎄요. 국내에 있다면 당연히 국보나 보물로 지정될 만한 귀중본이 상당량에 달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중 상당부분이 임진왜란 때 약탈당한 책인 게 분명하긴 합니다. 그러나 내 의도는 옛날 우리나라에서 저작 또는 인쇄된 책으로서 현재 국내에는 남아 있지 않은 연구자료를 발굴하려는 순수한 학문적 동기에서 시작한 일일뿐, 일본에의 流入 동기를 캐내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옛날에 약탈당한 전적의 실태를 조사한 셈이 돼버렸으니, 내게 연구비나 편의를 제공해준 그쪽 학술단체나 학자들에게 체신을 잃게 됐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군요.”

464종 발굴조사...80%가 국보·보물급

沈교수는 지난 75~76년 약 1년간 일본에 머물면서 황실도서관인 宮内省 書陵部를 비롯, 모두 15개처에 수장돼 있는 한국판 전적을 조사, 마이크로필름에 담아 왔다. 그뒤 10여년 동안 이를 정리, 치밀한 서지학적 연구를 거쳐 이번에 「日本訪書志」(정신문화연구원·신국판 752면)란 이름으로 펴낸 것이다.

沈교수가 밝혀낸 한국판 전적은 모두 464종, 책수로는 무려 4,942책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그중 국내에 전혀 없는 책이 132종, 국내에 있으나 落缺인 것이 50종, 일본에만 낙질로 있는 것이 6종, 도합 188종이 이번에도 비로소 그 전모가 밝혀졌다.

또 총 464종 가운데 80%가 넘는 387종이 임진왜란(1592) 이전에 나라의 공식출판기관인 校書館에서 간행된 것으로, 서지학적으로 보아 국보·보물급에 해당하는 귀중본들이 다.

“이들 전적의 일본유입 과정을 추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매권마다 찍혀 있는 원 소장처의 官印이나 內賜記(국왕이 책을 신하에게 내려준 기록)를 조사하면 알 수 있는 있지요.”

沈교수는 무척 조심스러워하는 태도이지

만,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전적은 일단은 왜란 당시 약탈해간 것으로 보아 틀림없을 듯. 현재 일본에 傳存하는 것만도 이 정도이니 당시 엄청난 물량이 바다를 건너갔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沈교수는 이들 전적을 조사함에 있어 일본 학술진흥회로부터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받았고, 특히 慶應大교수였던 阿部隆一박사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당초 阿部교수와는 열한차례의 편지왕래 끝에 공동연구로 착수, 阿部교수는 宋元本을 중심으로 한 중국판 조사를 맡고 자신은 한국판을 맡았는데, 阿部교수가 중도에 작고하는 바람에 독자적으로 펴내게 됐다고 沈교수는 말한다.

高麗本·癸未字本 등 판본학적 가치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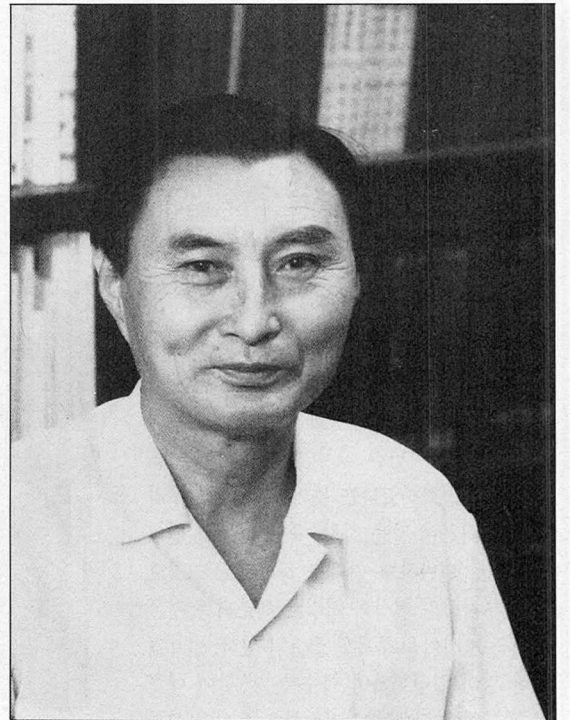
이번에 조사된 한국판 전적은 내용별로 보아, 한국인에 의해 저술 또는 재편된 韓籍과 중국인에 의해 저술된 것을 다시 번각한 漢籍으로 나뉘어진다. 총 464종 가운데 韓籍은 활자본이 109종, 목판본이 59종이고 漢籍은 활자본이 163종, 목판본이 133종으로 전체의 약 60%가 활자본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활자본은 그다지 많지 않다.

목판본으로 刊年이 가장 빠른 것으로는 「御製秘藏詮」(1245~1247), 「決定藏論」(1243), 「金剛般若經」(1386) 등, 고려본이 7종이나 된다. 이들 전적의 판본학적 가치는 가히 메가톤급이다.

활자본 중에서도 일본국회도서관에 있는 「纂圖互註周禮」(1403~1420)는 구텐베르크보다 40여년이나 앞선 금속활자 癸未字로 찍은 것인데, “계미자본은 4권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같은 판본이 일본에도 있음이 확인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 沈교수의 말이다. 이밖에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초기 금속활자본이 30여종이나 되고, 또 異版도 상당수에 달해 형태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한편 漢籍 활자본인 「歷代將鑑傳議」(1437·甲寅字)는 內賜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밝혀졌다. 이는 종래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돼 온 「書傳大全」(1623)보다 186년이나 앞선 책인데, 이번에 조사된 전적 중에는 「書傳大全」보다 먼저 간행된 내사본이 56종이나 더 있음이 밝혀진 것도 큰 수확이다. 沈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특히 이들 내사본의 板式·지질·표지문양 등을 세밀히 조사, 종래의 통

沈교수는 일본의 황실도서관을 비롯, 모두 15개처에 傳存하고 있는 한국판 전적 464종을 발굴, 치밀한 서지학적 연구를 더해 책으로 묶어냈다. 그중 387종이 임진왜란 이전에 校書館에서 발간된 것으로, 국보·보물급의 귀중본임이 밝혀졌다. 이들 전적은 임진왜란 당시 약탈해간 것이 틀림없다.



설에 수정을 가했다.

沈교수가 조사대상으로 삼은 수장처는 궁내부 서릉부 외에 內閣文庫·尊經閣文庫·동양문고·靜嘉堂文庫·大東急文庫·국회도서관·경응대학도서관·琳瑯閣·蓬佐文庫·天理도서관·神宮文庫 등 15곳. 그중 한국판 전적을 가장 많이 수장하고 있는 곳은 내각문고로 활자본 57종, 목판본 67종, 도합 124종이나 된다. 내각문고는 江戸幕府의 여러 기관의 장서를 인계받아 귀중한 사료를 많이 보존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궁내성 서릉부와 蓬佐文庫가 각각 79종씩.

蓬佐文庫는 德川家康으로부터 물려받은 장서 약 3천책을 중심으로 1620년께 창설된 문고로 名古屋에 있는데, 한국판 활자본 38종, 목판본 41종이 발굴되었다. 이밖에 尊經閣文庫는 막부시대의 여러 大名의 문고 중 백미로 꼽히는 前田家の 문고로, 활자본 18종, 목판본 25종, 도합 43종의 한국판 전적이 조사됐다. 이들 각 문고의 성립배경으로 미루어서도 우리나라 책의 유입 경로를 짐작할 수 있다.

이번에 조사한 15곳 외에도 한국판이 간직되었음직한 옛 藩主들의 문고가 상당히 많다. 沈교수는 “당초에는 모조리 빼놓지 않고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뜻대로 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면서도 “그러나 기왕에 조사한 464종에 대부분이 망라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의 옛 책에 대하여는 일찌기 李弘植(작고)·金東旭·千惠鳳·李佑成교수 등이 관심을 갖고 부분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종합적으로 조사보고 되기는 「日本訪書志」가 처음이다. 더구나 書目만이 아니라 일일이 서지학적인 연구를 더

해 상세히 解題한 沈교수의 노고는 ‘한국학계의 괄목할 성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 傳存 한국전적도 조사해야”

沈교수는 곧잘 연구실에서 밤을 밝히는 학구파로 소문났다. 원래는 국사학을 전공, 대학원(동국대)에서는 故 黃義敦박사에게 사사했고, 30대 후반에는 대만대학원에서 고고인류학을 전공, 甲骨學의 세계적 권위인 董作賓박사에게 사사했다. 그후 60년대 후반 이후 학계에 實學 연구 붐이 일면서 조선후기의 실학자인 안정복에게 경도, 그 학문적 성과를 「順菴安鼎福研究」(1985·一志社)로 묶어냈다.

그러는 한편 60년대 말께부터 전공을 書誌學으로 전환, 그동안 많은 논문과 번역을 통해 우리 도서관학의 정착에 기여함과 아울러 중국도서관학의 소개에도 힘을 기울였다. 지난 85년에는 회갑기념으로 「日本傳存韓國逸書研究」(一志社)를 펴내기도 했는데, 이는 이번에 나온 「日本訪書志」의 중간보고였던 셈이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도 병인양요(1866) 때 그네들이 강화도에서 약탈해간 우리 전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리스 쿠랑의 「朝鮮書誌」(1891)를 통해 그 대강의 윤곽은 알려졌을지언만, 書目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개별적인 서지 조사가 시급합니다.”

沈교수는 한국학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해외소재 한국전적의 조사작업에 학술기관이나 정책당국이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우 주간